

“시민안전 조성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정현을 익산시장, 시민 체감 안전정책 추진 계획 밝혀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2018년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포항 지진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잇따른 사고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안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 민간 안전관리대상시설 및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신고 등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1,200여 개소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안전사고 민발분야 및 생활 밀접분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등 3개 유형 15개 분야를 중점 점검한다.

더불어 안전점검 민관합동 점검반과 어린이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민간 주도의 민관 협업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전개를 통해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안전사고 감축도 내실있게 추진된다.

화재,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를 중점 관리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35명을 감축하고 취약계층 안전점검 실시 등 분야

별 21개 중점과제를 설정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안전지수 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54개교 5,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통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심폐소생술 4개 분야 맞춤형 안전문화교육도 확대된다.

익산시는 2017년 안전신문고 신고실적 3,480건 전북 1위라는 상승세에 힘입어 2018년 안전신고 목표건수 3,255건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목표의 40%를 달성, 실효성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 생이 신고할 경우 신고건당 자원봉사 1시간을 인정해줄 예정이다.

기존백서 ‘총화의 기적’은 관과 군부대 중심의 백서로 시민이 겪었던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충분히

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복구과정에서도 시민의 입장과 의지가 거의 반영되지 못했고 피해 당사자와 관련자 대부분이 고통이어서 기록을 재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관계자의 구술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백서를 발간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할 예정이다.

대형재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다중이용시설 16개소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익산소방서와 협업으로 소방분야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명절대비 민관합동 안전점검, 봄·가을 행락철, 여름철 성수기 등 재난예찰을 강화하고 상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 중국 남창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 선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사진)가 중국 강서성(江西省) 정부 소재지인 남창시(南昌市)에서 2017년 12월에 출범한 남창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돼 앞으로 5년 동안 수석중재인으로 활동한다.

중국의 수석중재인은 3인 또는 5인 등 다수의 중재인을 선임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 한국의 의정중재인과 같은 의미로서 사건 발생에 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때 양자가 선임한 중재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 최종적으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정책을 맡는다.

특히 발생한 무역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재인들이 판정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이해도가 높아 승복 가능성이 크고,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제

할 수 없는 등 무역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용길 교수는 이어 진행된 국제중재 세미나에서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중재법을 비교 발표하면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역설하고, 한·중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있어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 중국, 영국,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중재 전문가 및 중재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처리결과 및 자국의 중재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용길 교수는 14년 동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및 국내 조정사건을 해결하는 등 중재 활동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회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사위원, 관계청 관세혁신위원,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중국 청도 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공연·예술·관광 도시 만들기’ 총력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발표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김병래 소장)는 23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품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감성 있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만들기” 운영계획을 밝혔다.

올해 예술의전당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8여개의 작품 라인업을 구성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관람기회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아이파크를 조성하여 컴퓨터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립도서관은 2개 공공도서관과 14

개의 작은 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다양한 도서 확충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식정보 확산과 건강한 독서문화를 조성하는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기획전과 정책세미나 근대문화 공연을 통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근대 문화 대표 관광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산시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을 연계한 품격 있는 기획공

연과 전시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예술의전당은 대형가요 콘서트, 뮤지컬, 영웅, 이은결의 매직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여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였으며, 시립도서관 또한 시민들이 희망하는 최신도서 확충과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연 이용객 백만 명을 훌쩍 넘어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은 근대 콘텐츠를 기반으로 특화된 근대 박물관으로 부상하여 군산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북돋우 수행했다.

/군산=김판곤기자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익산시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올해도 두 팔을 걷어 부쳤다.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소외된 우리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하여 동산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에도 관내 어려운 세대와 일대일로 결연을 맺어 22세대 220만원을 전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 바가 있다.

소 위원장은 “매년 이웃을 위해 기부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나눔의 행복을 배우고 있다며, 위원 모두가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회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강은옥 동산동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고마운 뜻을 함께 나누겠다”며, 주신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 나서

군산시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23일 한국산업단지 전북지역본부 R&D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 설명회에서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와 함께 사업홍보와 더불어 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 해 대비 16.4% 상승함에 따라 임금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임금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4대 보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최저임금 상승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현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소방서, 대국민 119구급신고 이용 요령 홍보활동

군산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신고를 위해 대국민 119구급신고 이용 요령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119 구급서비스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서비스지만 막상 신고자는 119신고 후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119신고 후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려 뒤 정확한 환자의 위

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위치를 모른다면 스마트폰 GPS를 켜고 주위의 큰 건물의 상호나 전화번호,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고속도로 이정표, 전봇대번호를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전화는 끊지 말고 가 능하면 환자의 상태, 나이, 과거병력을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 의료지도도 받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 까지 기다린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겠다”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 위한 도서관 확충

군산시가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2개소 및 작은 도서관 1개소를 2020년까지 확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총 18개소 공공도서관 4개소, 작은 도서관 14개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제공 및 지역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에는 공공도서관 2개소(봉부면도서관 및 서육구도서관)의 기본 및 실시 설계공역을 추진하여 2019년에 국비를

확보한 후 2020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시설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현재 14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추가로 개정동 작은 도서관을 경로당과 복합건물로 연면적 330㎡, 2층 규모로 2018년 내 신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군산시민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어린이 행복돌봄 공간

동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